

문: 삶과 꿈 기말 레포트

202321459 영어영문학과 박나연

데이지를 향한 개츠비의 사랑은 동일시로 시작하여 사랑의 형태를 잠시 띄었다가, 점점 극단적인 사랑으로 발전되었다.

나는 이 레포트에서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을 응용분석해보려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데이지를 향한 제이 개츠비의 사랑을 프로이트가 말하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려는 것이다.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중에서도 내가 인용하려는 부분은 7장의 '동일시'와 8장의 '사랑에 빠진 상태와 최면' 부분이다. 본격적으로 개츠비의 사랑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개츠비와 데이지가 처음 만난 것은 개츠비가 군인 장교였을 시절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첫눈에 홀린 듯 끌리지만, 출신이 가난하여 잃을 것이 없던 개츠비가 탐내기에 데이지는 가진 것이 너무도 많은 여자였다. 결국 개츠비는 편지 한장을 남긴 채 전쟁터로 떠나고, 둘의 첫사랑은 이토록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 그러나 데이지와 헤어져있는 5년동안 개츠비는 데이지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백만장자가 되고, 남 부럽지 않을 호화로운 집에서 화려한 파티를 주최하며 살게된다. 이 모든 것이 데이지와 다시 만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데이지가 개츠비에게 얼마나 강렬하고 잊지 못할 사랑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이렇듯 불과 몇년 사이에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부와 능력을 갖게 된 개츠비가 충분히 다른 멋진 여성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텐데, 다른 여성에게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이 오로지 데이지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이러한 개츠비의 심리를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설명해보려고 한다. 프로이트는 '동일시'를 감정 유대의 가장 초기의 나타나는 원초적인 형태라고 말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지도리, p.59) 또한 이 동일시를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대상이 그가 되고 싶어하는 존재일 경우이고 둘째는 대상이 그가 갖고 싶은 존재일 경우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두가지 경우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느꼈다. 유대가 자아의 주체에서 시작되어 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대상에서 시작되어 주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상에게 끌리게 된 이유가 개츠비처럼 자아에게 있다면 전자일 것이고, 오로지 그 상대에게 있다면 대상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마음은 자아를 물들일 것이다. 즉, 개츠비의 경우는 전자이다. 그는 데이지와 같은 사회계층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데이지를 '갖고'싶어졌다. 데이지에게 끌리게 된 이유가 개츠비의 경제적 가난과 결핍에서 비롯한 열등감과 허영심에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개츠비는 데이지와 가까워지면서 잠시나마 자신의 한계와 열등감을 잊게 되었고, 마치 그녀와 같은 사회계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다시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애초에 개츠비가 데이지에게 끌렸던 이유는 출신과 가난 때문에 많은 열등감을 가지

고 살아온 자신과 달리 가진 자의 여유로움과 우아함을 가지고 있던 데이지의 모습 때문이라는 것이다. 데이지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예쁜 여자라고 해도 그러한 여유로움이 없었다면 개츠비는 다른 여성들에게 그래왔던 것처럼 데이지에게 끌리지 않았을 것이다. 동일시가 일어날 때 주체는 대상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자아를 그것과 비슷하게 형성하려고 애쓰게 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지도리, p.61) 따라서 개츠비는 더욱 그녀를 본보기로 삼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와 비슷하고 그녀에게 어울리는 여유로운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 경제적 여유나 능력이 없는 군인 장교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이렇듯, 처음 만난 순간부터 둘 사이에는 감정 유대, 즉 동일시가 진행되었고 개츠비는 점차 자신의 자아 속에 대상, 즉 데이지를 투입하였다. 이 동일시가 진행되면서 점점 데이지 없이는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동일시가 바로 개츠비가 언젠가 데이지를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개츠비가 데이지를 다시 재회하기 전까지만 해도 둘의 감정유대는 동일시에 머물러 있었고 열렬한 사랑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인 순종, 나르시시즘의 제한, 자기손상이 아직 개츠비에게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프로이트가 제기한 의문에 나만의 답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p.71에서 프로이트는 "동일시의 경우에는 대상이 없어지거나 포기된다. 그 다음에는 대상이 자아 안에서 다시 확립되고, 자아는 사라진 대상을 본보기로 삼아 부분적으로 변한다." 라고 설명한 후 질문한다. 그렇다면 **대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동일시가 일어날 수 없는가?** (지그문트 프로이트,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지도리, p.71)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대상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도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다. 이것은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개츠비가 왜 다른 여성이 아닌 데이지만을 기다렸을까?" 하는 나의 의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한다. 만일 데이지를 향한 개츠비의 동일시에서 대상인 데이지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포기된 후 데이지를 본보기로 삼아 개츠비의 자아가 변화한 것이라면, 개츠비는 성공한 이후 데이지와 비슷한 상류층의 여성들을 거리낌없이 만나고 그것만으로 만족했을 것이다. 그가 원한 것이 단순히 부유한 상류층이 되어 데이지와 비슷한 부와 배경을 가진 여성을 만나는 것이었다면 말이다. 그런데 개츠비가 동일시한 것은 단순히 부와 권력을 가진 여성이 아니라 그 부와 배경으로 치장된 '데이지' 그 자체였다. 그녀가 가진 목소리, 외모, 우아한 분위기 등 데이지라는 대상 자체를 자신의 자아 속에 투입했고 그 대상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까지도 잊히지 않은 채 개츠비의 자아 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가 무언가를, 데이지를 사랑하는데 들었었던, 어쩌면 그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삶은 그때 이후로 혼란스럽고 엉망이 되었지만, 그러나 만약 그가 한번이라도 특정한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전부를 천천히 살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새움, p. 179) 이 문장은 개츠비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며 닉이 생각한 것이다. 나는 바로 이것이 개츠비도 모르는 사이 데이지와 동일시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내면화한 대상인 데이지를 잃고 개츠비의 삶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으며, 데이지가 아니라면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두사람이 재회하게 된 후, 동일시에 머물러있던 둘의 감정유대는 나아가 사랑이 된다. 이제는 이 '사랑'의 심리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먼저 프로이트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의 선택이 나타내는 많은 모습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 대상이 자신이 도달하지 못한 자아 이상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대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자아를 위해 얻고자 애쓴 완전함을 그 대상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완전함을 얻고 싶어 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지도리, p.69) "자아는 점점 까다롭지 않게 되고 겸손해지며, 대상은 점점 더 훌륭해지고 소중해진다. 마침내 대상은 자아의 자기애 전체를 사로잡는다. 따라서 자아의 자기 희생이 그 당연한 결과가 된다. 말하자면 대상이 자아를 완전히 소모해버렸다. 순종, 나르시시즘의 제한, 자기손상의 특징이 사랑에 빠진 경우에는 언제나 나타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지도리, p.70)

데이지가 자신의 여자가 된다는 것은 개츠비에게 곧 어린시절부터 꿈꿔온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를 완성시키는 일이었다. 여기에서 '자아 이상'이란 자아가 되고 싶은 이상향이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자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가난으로 인한 열등감은 스스로 해치울 수 있었지만, 그가 가지게 된 부와 새로운 삶 또한 데이지의 인정과 존재가 없다면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이제 개츠비에게 있어서 자신이 도달하지 못한 유일한 자아 이상은 '데이지의 남자'가 된 자신의 모습이다. 첫 만남때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더 다가가지 못했지만 같은 사회계층에 서게 된 후, 이 자아 이상을 이루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개츠비는 데이지를 사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대상인 데이지가 자아인 개츠비를 소모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개츠비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는 성급해지기 시작한다. 이번만큼은 5년 전과 다른 결말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함과 초조함이 발동하여 데이지가 둘러싸여있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그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녀를 완전히 갖는 것만이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키고 자아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개츠비의 순종, 나르시시즘의 제한, 자기손상이 시작된다. 데이지의 마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츠비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톰과 데이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톰을 도발한다거나 데이지에게 '톰을 사랑한 적 없다'고 말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데이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둘의 관계는 이른바 '불륜'에서 더 발전할 수 없게 된다. 이때부터 개츠비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고 생각한다. 데이지와 재회하기 전의 차분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던 개츠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랑에 혈안이 된 젊은 남성의 모습이 남았다. 개츠비 자신이 그것을 인지했는지, 하지 못하였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자신이 주체로써 점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유를 잃어간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데이지에게 쏠린 개츠비의 리비도는 이미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어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톰, 닉, 조던과 함께 시내의 호텔에 가던 날 개츠비의 조급함이 절정에 달한다. "그녀는 단지 내가 가난했고 나를 기다리기에 지쳤기에 당신과 결혼했던 거요. 끔찍한 실수였었지.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나 외엔 어느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소!"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새움, p.208) 라며 자신이 믿고 싶은대로 몰아붙이기 시작한다. 이때 개츠비의 자아는 이미 완전히 데이지에게 잡아먹혀서, 데이지의 본심과는 별개로 개츠비 자신이 데이지가 되었다고 망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이 자아 이상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이전까지 '데이

지의 남자가 된 자신의 모습'이 개츠비의 마지막 남은 자아 이상이었다면, 이제 '데미지 차제'가 개츠비의 자아 이상이 된 것이다. 때문에 톰으로부터 데이지를 완전히 차지하려는 소유욕이 발동한다. 개츠비는 없고 데이지만 남았다. 자신이 곧 데이지이기에, 자신과 그녀의 마음은 분명히 같을 것이라고 굳게 믿은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가지의 의문을 더 가질 수 있다. **“데미지는 왜 개츠비와 같은 마음일 수 없었을까? 그녀는 개츠비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결론에 이르렀다. 나의 결론은 **데미지는 애초에 개츠비와 감정유대의 초기형태인 '동일시'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5년전 첫만남때부터 그녀도 개츠비에게 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개츠비에게 동일시 되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녀가 누군가를 동일시 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개츠비가 아니라 톰이었다. “한 자아가 다른 자아에게서 어떤 의미있는 유사점을 인지하면, 그러한 이유로 이 점에서 동일시가 생겨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지도리, p.63) 즉, 데이지와 의미있는 유사점을 가진 것은 개츠비가 아니라 톰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즉각적으로, 구체화되길 원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어떤 힘 - 사랑이나 돈, 의문의 여지가 없는 실제적인 것 - 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했다.” “그 힘은 봄이 한창일 때 톰 뷰캐넌이 도착하면서 모습을 갖추었다. ‘그’라는 인간과 배경에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었고, 데이지는 으쓱해졌다.” (F.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새움, p.239) 이 구절들을 보았을때 데이지가 원하고 추구하는 사람과 사랑은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톰을 만나면서 진정한 동일시와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데이지가 결코 톰을 버리고 개츠비에게 갈 수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데이지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눈에도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데이지는 개츠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개츠비를 위해 이렇다 할 자기의 희생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 톰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자신에게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 아님에도 그저 모든 것을 인내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과는 확실히 다르다. 안타깝지만, 개츠비를 향한 데이지의 마음은 자신의 가정과 안위를 지키면서 잠깐 즐겼던 유흥 같은 것이었다.

이렇듯,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데이지에게서 확신을 찾을 수 없자 더더욱 조급해진 개츠비의 사랑은 점점 극단적인 형태로 치닫는다. 머틀의 사고 후 돌아온 개츠비는 톰이 데이지에게 해라도 가할까봐 밤새 데이지의 창문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 잠시의 고민도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 데이지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이야기 할 것이라는 결심도 드러낸다. 마치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될 미래의 일들은 그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이는, 개츠비의 사랑이 이미 극단적인 형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사랑의 경우에는 대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자아 쪽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대상 자체에 지나치게 리비도를 집중한다.” “ 극단적인 형태의 사랑에서 자아는 대상에 굴복하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의 자리에 대상을 놓는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지도리, p.71) 이렇듯, 극단적인 사랑에 빠진 개츠비에게 그녀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일 따위는 그렇게 대단하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의 자리에 있는 데이지를 지키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렇게 위대한 개츠비는 절반 이상을 그녀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의 극단적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녀 대신 비극적

인 죽음을 맞이한다.

정리하여, 데이지를 향한 개츠비의 열렬한 사랑은 그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동일시에서 시작되어 점차 그녀를 자신의 자아 속에 투입하게 되고 떨어져있는 5년 동안에도 그로 인해 그녀만을 기다리고 재회를 꿈꾸다가, 다시 만난 후에는 그녀를 통해 온전함을 얻고 자신의 자아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한다. 데이지가 자신이 도달하지 못한 자아 이상을 대체하게 되면서, 많은 양의 나르시시즘적 리비도가 데이지에게 집중된 단계이다. 그러나 데이지는 개츠비와 동일시도 일어나지 않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의 마음은 같을 수 없었다. 점차 개츠비는 조급함이 발동한 채로 자아를 잃어버리고 극단적으로 데이지를 원하게 된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개츠비의 열등감과 결핍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개츠비의 열등감이 없었다면, 데이지와 동일시가 일어날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레포트의 끝에서 나는 <위대한 개츠비>가 아주 비극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운명이 결핍으로 시작되어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한 채 그것에 그대로 잠식되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사랑하여 자아, 즉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므로 사랑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